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열 번째

## 천상의 전쟁

Jeff Pippenger

2023-11-03

그리스도와 루시퍼(빛을 가져오는 자) 사이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다. 루시퍼가 자신의 반역을 퍼뜨렸을 때, 루시퍼의 반역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일정 기간이 허용되었다. 하나님이 그 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결정하셨을 때, 루시퍼의 이름은 빛을 가져오는 자 루시퍼에서 대적자 사탄으로 바뀌었다. 사탄과 그의 반역에 동참한 천사들에게는 유예 기간이 끝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쫓겨 영원한 불의 형벌을 선고받았다.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시되,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41.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그 후 에덴동산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유예의 시간을 두셨다. 사탄이 죽음과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고발하고, 하와를 유혹하여 그의 반역에 동참하게 했을 때,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반역의 열매가 땅에서 드러나도록 다시금 일정 기간이 허용되었다. 그곳에서 사탄은 '마귀'라는 추가 이름을 받았는데, 이는 '참소자'를 뜻한다. 유예 기간(사탄의 반역에 동참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한)이 끝나면, 그 아담의 자손들은 정죄되어 영원한 불에 처해질 것이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으며 용과 그의 천사들도 맞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하늘에서는 그들이 있을 곳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그 큰 용,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옛 뱀, 마귀라 불리며 사탄이라 불리는 자가 내쫓겼고, 그는 땅으로 내쫓겼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요한계시록 12:7-9.

대쟁투의 시작에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은 대쟁투의 끝에 있을 전쟁을 보여 준다. 이는 알파와 오메가가 언제나 어떤 일의 시작으로 그 끝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묘사는 하늘의 큰 이적으로 도입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해를 옷처럼 입은 한 여자가 있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개의 별로 된 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뱀 채 해산하려고 진통하며 소리쳤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요한계시록 12:1, 2.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충돌이 일어날 때, 즉 은혜의 시기가 아직 유효한 동안에, 전쟁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진리는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세 하늘에 대해 말한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초기부터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특별한 기회를 받았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고', '낙원에 이르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주께로부터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의 복음 진리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가장 뛰어난 사도들'에 못지않았다. 고린도후서 12:2, 4, 1, 11. 그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분명하고도 충만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에베소서 3:18, 19. 사도들의 행적, 469.

대쟁투가 시작될 때의 전쟁은 셋째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대쟁투가 끝날 때의 전쟁은 첫째 하늘에서 끝난다. 하늘은 셋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를 가리키는 하늘이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다. 셋째 하늘은 화이트 자매가 '낙원'이라고 부른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바로 하나님의 지휘 본부 앞에서 빛을 지닌 자, 루시퍼가 그의 반역을 시작했다.

셋째 하늘은 화이트 자매를 포함한 몇몇 선지자들이 환상 중에 데려가졌던 곳이다.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 때, 그는 2020년 7월 18일 거리에서 죽임당했던 마른 뼈들의 소생의 역사와, 십사만 사천의 탄생과 함께 뒤따른 사건들이 보여졌다. 바울은 그 역사를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 역사는 '발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역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바울은 요한 계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환상을 받기 삼십 년 남짓 전에 세상을 떠났다. 요한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들었고, 그 또한 그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은 두 증인이 거리에서 죽어 있던 상징적 삼일 반이 끝날 때까지 봉인된 채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일곱 우리가 그 음성을 내었을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였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4.

모든 선지자들은 조사 심판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증언하며, 그 "마지막 날들"은 구체적으로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고, 이제 인침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인침은 살해된 두 증인이 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상징적 사흘 반이 끝날 때 시작된다.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일치한다. 바울은 첫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유예 기간의 마지막 전쟁의 전장을 보았다. 첫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유예 기간의 마지막 전쟁의 전장은, 셋째 하늘에서 벌어졌던 유예 기간의 첫 번째 전쟁의 전장과 상응한다. 그 전장들이 유예 기간의 전쟁에 속한다고 구분하는 일이 불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대적이었고 마지막 전투에서 십사만 사천의 대적인 사탄은 자기의 때가 짧음을 안다. 그는 그것이 유예 기간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임을 안다. 우리는 아는가?

1840년에 힘센 천사가 강림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에 권능을 더해 주었다. 그 세대의 개신교도들은 시험을 받았고, 바벨론의 딸들이라 낙인찍히며 그들에게 반역의 이름이 붙었다. 루시퍼의 이름도 그의 유예적 시험 기간 동안 바뀌었다. 1840년에 강림한 그 힘센 천사는 2001년 9월 11일에 강림한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를 예표했다. 1840년에는 조사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그것은 아직 4년 뒤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40년에 그 천사가 강림했을 때 그들의 유예적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개신교도들은 여전히 산 자의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되었다. 2001년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했을 때, 하늘의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에서 산 자의 심판으로 전환되었다.

2020년 7월 18일, 첫째 천사 운동의 첫 실망으로 예표된 셋째 천사 운동의 첫 실망이 임했다. 초기의 그 운동에서는 개신교인들을 시험하는 과정이 첫 실망이라는 이정표에서

끝났고, 이어서 첫째 운동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2020년 7월 18일, 심판 과정은 또 한 걸음 나아갔다. 왜냐하면 사흘 반의 광야의 끝에 도착할 그 기별이 한밤중 외침 기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성취가 될 뿐 아니라, 예언적으로 144,000인의 인침의 도래도 표시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계시던 그 그룹에서 떠나 성전의 문지방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옆구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부르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성읍 한가운데,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중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에스겔 9:3, 4.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과정은 그들의 탄생, 곧 그들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네 바람의 기별은 죽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며, 네 바람의 기별은 곧 십사만 사천의 인침의 기별이다. 바울과 요한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역사를 보았고 들었으니, 이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원하였던' 역사이다. 첫째 천사의 능한 운동으로 표상되었던, 셋째 천사의 능한 운동의 역사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메시지는 이제 힘 있게 전해져야 한다.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눈은 보므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를 원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를 원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였던 일들을 본 눈은 복이 있도다.

"메시지는 주어졌다. 그리고 때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으므로 그 메시지를 반복하는 데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 한 메시지가 주어질 것이며, 그것은 큰 소리 외침으로 고조될 것이다. 그때 다니엘은 자기 분깃에 서서 그의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원고 발표, 21권, 437.

하늘에서 루시퍼가 벌인 초기의 전쟁에서 주된 주제는 의사소통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룩한 천사들의 마음속에 오류를 교묘히 주입한, 빛을 가져오는 자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반역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천사들은, 하나님에 관해 결국 자신들이 품게 된 생각을 품도록 자신들을 꾀었던 이가 루시퍼였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처럼 매우 교활하여, 한때 거룩했던 천사들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 놓은 생각을 자기들의 고유한 생각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 씨앗들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열매를 맺었다.

첫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으며, 그것은 거룩한 천사들의 미혹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에 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부패한 통신 과정을 통해 그가 온 인류를 미혹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사탄이 사람들에게 사상을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월드와이드웹에 관한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을 믿게 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그는 사탄의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되는 바로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미혹은 용의 세력인 유엔의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언에서 유엔의 글로벌리스트들은 왕들과 상인들로 구성된다. 왕들은 정부들이고, 기술 대기업들과 다국적 억만장자들은 상인들이다.

전쟁은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되며, 그 시점에 미국은 열 왕 가운데 으뜸가는 왕이 된다. 이어서 미국은 막 용처럼 말하였고, 이로써 땅의 짐승의 여섯째 왕국의 종말을 알린다. 그 후 그는 짐승 앞에서 행할 기적들을 통해 온 세상을 미혹하려 나아가는데, 그 기적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  
요한계시록 13:13.

거리에서 살해당했던 죽은 마른 뼈들이 부활하여 깃발처럼 하늘로 들어 올려질 때, 동시에 하늘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일곱 개의 왕관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2:3.

큰 붉은 용은 사탄이지만, 또한 이교도 로마이기도 하다.

따라서 용은 주로 사탄을 나타내지만, 이차적인 의미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위대한 논쟁, 439.

용은 사탄이며, 이차적 적용으로는 용이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탄생 역사에서는 이교 로마의 용이 나타나지만, 용에 대한 완전한 예언적 적용은 '말세'에 있다. '말세'에는 용이 국제연합의 열 왕으로 상징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역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표된 십사만 사천의 탄생 역사에 나타난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자신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낙인을 찍었고, 성도들—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싸우러 나아가는 용으로 묘사된다." Testimonies to Ministers, 38.

용의 열 뿔은 그 연합을 상징하며, 머리 위에 관을 쓴 일곱 머리는,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신상과 요한계시록 17장의 여덟 머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것이 성경 예언의 여덟 왕국 가운데 일곱째 머리임을 가리킨다. 말라버린 죽은 뼈들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거리에서 태어난 그 기치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바로 그때, 유엔은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다. 용과 여자는 일요일 법령 때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적들로 나타나며, 바로 그 시점은 가톨릭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한 "경이히 여김을 받는" 때이기도 하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는데, 그 치명상이 나왔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놀랍게 여겨 따랐다. 요한계시록 13:3.

온 세상은 그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후에' 교황권의 바다 짐승을 놀라며 따르게 되며, 그 상처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 때 치유된다. 기치와 용과 짐승은 모두 미국의 일요일 법령 때부터 사람들의 놀람과 추종의 대상이 된다.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때 사탄적 이적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일요일 법령 직후, 곧 거짓 선지자가 막 '용'처럼 말하기 시작한 그때 그가 온 세상을 미혹하러 나아가기 때문이며, 그는 하늘로부터 그 미혹을 이룬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어린양 같은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그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을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13.

셋째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첫째 하늘에서 끝난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은 성경과 예언의 영에 의해 사악한 동맹으로 규정된다. 일요일 법령 때, 이 삼중 연합은 아마겟돈을 향해 진군하면서 여인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온 세계를 이끌기 시작한다. 일요일 법령 때, 그들은 첫째 하늘의 전장에서 진을 치고, 그러고서 패배한다! 로마는 세계 역사에서 세 번 권세를 잡을 때마다, 항상 먼저 자신의 적을 정복하고, 그다음에는 동맹을, 그다음에는 희생자를 정복한 뒤, 결국 몰락한다.

나는 개구리 같은 세 부정한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이라, 땅의 왕들, 곧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그들을 모으려 함이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 있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았다. 요한계시록 16:13-16.

'마지막 때'의 '하늘에서의 전쟁'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전쟁이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기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이 나온다. '영'이라는 말은 '호흡'을 의미하고, 그 호흡은 메시지를 상징한다. 에스겔 37장의 호흡은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동풍으로 나타나는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영', '바람', '호흡'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모두에서 같은 단어가 영어의 그 세 단어로 번역된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며, 제단에서 취한 타는 숯불로 그들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분을 찬양함에 능변하게 하실 수 있다. 수천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어눌한 혀가 풀리고, 소심한 자들은 진리에 담대히 증언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이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고, 늦은 비가 부어질 때 그것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그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Review and Herald, 1886년 7월 20일.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들'은 사탄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셋째 하늘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타락한 빛의 담지자로 상징되듯 그 본질이 왜곡된 소통이었다. 첫째 하늘에서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그 본질은

다시금 왜곡된 소통이다. 사탄이 셋째 하늘의 전쟁에서 사용했고 첫째 하늘의 전쟁에서도 다시 사용하게 될 그 왜곡된 소통은 메스머리즘이었으며, 현대에는 최면이라 불린다.

남녀는 자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탄이 가르치는 학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것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우리는 메스메리즘과 최면술—처음 받은 지위를 잃고 하늘 궁정에서 쫓겨난 자의 학문—에 손대서는 안 된다. 원고 86, 1905년.

오늘날 세상에서의 최면은 기술 대기업들이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웹은 '현대 광고의 과학'이라 이름 붙은 것을 동원하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사탄적 최면술이 궁극적으로 정교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글로벌리스트들과 기술 대기업, 그리고 억만장자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속임수의 '거미줄' 안에 그들의 먹잇감을 사로잡으려 한다. 말하자면, 전 세계를 향한 사탄의 심리전이다.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것은 사탄적 메시지이며, 그 사탄적 메시지들은 세 천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로 그대에 하늘에서 선포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중천을 날아가는데,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가 뒤이어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가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의 분노의 잔에 섞임 없이 부어진 것이라.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의 고통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가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4:6-11.

삼중 연합의 각 구성원에게서 나오는 "영"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 국가의 발언은 그 정부의 행동이다.

국가가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위이다. 대쟁투, 443쪽.

예레미야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내고, 쭉정이에게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되(비록 쭉정이는 그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입'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였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홀로 앉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항상하며, 낮지 아니할 상처가 낮기를 거절하나이까? 주께서 정녕 내게 거짓된 자 같으시며, 마르는 시냇물과 같으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서리라.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가려 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5장 17-19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실망 속의 밀러파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1843년 도표의 한 실수를 손으로 덮어 두셨을 뿐이었다. 예레미야는, 2020년 7월 18일에 실망한 이들이 약속받은 것과 같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 곧 그들이 실망 이전에 존재하던 어리석은 자들과 사탄적인 가르침에서 분리한다면, 주께서 예레미야와 그가 예표하는 자들을 주님의 "입"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다. 1843년 도표는 하박국 2장에 있는 명령을 성취하여 제작되었다.

“원래의 믿음’ 위에 서 있던 재림 강연자들과 정기간행물들의 일치된 증언은, 도표의 출판이 하박국 2:2, 3의 성취였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 도표가 예언의 한 주제였다면(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원래의 믿음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원전 457년이 2300일의 기산점이 되는 해였음이 따른다. 1843년이 최초로 공표된 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 묵시’가 ‘더딜’ 것, 곧 더디는 기간이 있게 되기 위함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처녀들의 무리가 시간에 관한 그 큰 주제 위에서 잠들고 졸고 있다가, 바로 그들이 한밤중의 외침에 의해 일깨움을 받기 직전이었던 때문이다.” James White, Second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Volume 1, Number 2.

주께서는 하박국을 통해 밀러주의자들에게 1843년 도표를 만들라고 명하셨고, 그 도표에는 주께서 손으로 덮어 두신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실망이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실망 이후에 주께서 밀러주의자들을 하박국 2장으로 다시 이끄셨을 때, 그들은 약속을 보았다. 곧 묵시가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야 하며, 그것은 거짓되지 않고, 마침내 끝에 가서 그것이 '말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환상이 '말하는 것'은 예언적 메시지의 내용을 드러낸 것이었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가 실망을 떨쳐내고, 실망 이전에 가졌던 그 메시지에 대한 열심으로 돌아가며, 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한밤중 외침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요, 마침내 말하여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3

첫째와 셋째 천사의 운동 모두에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예레미야로 대표된 자들은 첫째 하늘의 전장에서 악한 연합에 맞선 전쟁에서 주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음성"을 듣고 있다. 상징적 3일 반은 예언적 광야의 상징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라. 이사야 40:3-5.

우리는 다음 글에서 제3 하늘에서 시작되어 제1 하늘에서 끝나는 시련의 전쟁 중 마지막 전투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었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모였다. 그는 온 므낫세에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그의 뒤를 따라 모였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도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올라와 그들에게 합세하였다. 사사기 6:33-35.